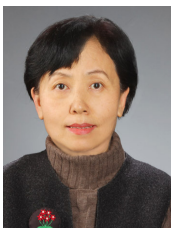


‘제63회 신문의 날 표어’ 대상

신문보며 배우네 나무도 숲도 읽어 내는 안목



의 날 표어 대상에 '신문보며 배우

네 나무도 숲도 읽어 내는 안목'(채 승혜<사진>·64·제주시)을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착 펴면 척 보이는 세상, 다시 신문이다'(김현진·43·경기 시흥시)와 '급류를 타는 세상, 방향키 잡는 신문'(이주상·18·서울시)등 2편을 뽑았다.

심사위원들은 “'신문보며 배우네 나무도 숲도 읽어 내는 안목'은 표어의 정형화된 운율을 벗어나고 내용도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신문의 정수인 정확한 팩트, 팩트들이 엮여 일궈 내는 가치의 중요성을 울림과 여운 가득하게 담아낸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3월 12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심사에는 3단계가 각각 추천한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수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배성재 한국일보 지역사회부 기자가 참여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은 4월 4일(목) 오후 4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갖는다. ▶ 6면에 심사평

신문읽기문화 진흥·adKAN 활성화 총력

신문협회, 정기총회에서 2019년 사업 확정

한국신문협회는 3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9년 사업 및 예산을 확정했다. 총회는 올 한해 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읽기 캠페인, 신문산업 정책과제 발굴, 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디지털 뉴스 유통 정상화, 신문활용교육(NIE) 활성화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병규 회장은 안건 심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도 저널리즘의 가치와 존엄성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의 신문 읽기문화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지역언론의 고충과 어려움은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2019년 신문협회 주요 사업〉

△조사연구 ①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 행태 ②활자 매체 이용과 뇌 활성화·두뇌 발달의 상관관계 ③국내외 신문의 정정보도 법제·정책 비교

△정책·법제 ①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②매체 균형발전(지상과 중간광고 저지) ③프레스센터 관리·운영권 언론계 환수 ④(국회의원·발행인 교류를 위한)대한민국 미디어 정책 포럼 운영 ⑤(언론인 출신 언론학자가 참여하는)신문의 미래전략 간담회 개최 ⑥언론진흥기금 국고 출연 ⑦신문규제법안 저지 및 신문진흥법안 추진 ⑧정부광고법 대응(광고대행수수료(10%) 광고주(정부·공공기관) 분담)



3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협회 정기총회에서 발행인들이 올해 주요사업 및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 유통 ①대 포털 적정 뉴스 저작권료 산정 및 요구 ②포털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전환 ③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정상화 방안 모색 ④(언론계·언론학계·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저널리즘 복

원 협의체 구성·운영 △독자확대·NIE ①NIE 패스포트 공모전(초·중·고생이 신문을 읽고 과제 수행하는 워크북) ②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회원사 기자가 초·중·고 방문해 진로 등 강의) ③신문을 활용한 진로·융합교

육 교원 연수 △adKAN(신문광고디지털전송시스템) 매출 증대 및 정부광고통합시스템과 연계 △기타 ABC부수 공사제도 개선(발행부수 중심 공사), 신문산업 정책과제 안내서 발간.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행사 및 신문주간 프로그램

기념세미나

- 주제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효과 및 실행방안
- 일시·장소 : 4월 3일(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사회: 이재진 한국언론학회 회장(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발제: ①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②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기념대회

- 일시·장소: 4월 4일(목) 오후 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프로그램
 - 개회사: 김중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 대회사: 이병규 한국신문협회 회장
 - 시상식: 신문의 날 표어 공모전·신문협회상 수상자

기념축하연

- 일시·장소: 4월 4일(목)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프로그램
 - 시상식: 한국신문상 수상자
 - 환영사: 이병규 한국신문협회 회장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언론 전시회(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 전시기간·장소: 4월 1일(월)~12일(금),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
- 전시 내용: 3.1운동 등 항일 투쟁과 임시정부 관련 당시 국내·외 언론보도물(기사, 사진, 영상) 100여점 등

신문주간 공동광고

- 일자: 4월 1일(월)~6일(토), 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지면

지역신문은 ‘1보’ 해도 금세 포털 하단으로

지역뉴스 우선 노출하는 해외 트렌드와 배치

네이버 등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이 지역 언론의 문제를 넘어 전체 미디어업계의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월 네이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검색 결과 리스트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바꾼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알고리즘 체제에서는 지역신문이 ‘1보’를 써도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는 뒤따라 쓴 서울의 제휴 매체 기사로 채워진다. 지역신문이 작성한 기사는 금방 뒤로 밀려나게 된다.

포털의 지역뉴스 확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신문협회 등은 수년 전부터 포털을 상대로 지역신문 차별 방지책을 요구했으나, 포털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지역 언론에 불리하게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지역 언론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이에 대해 지역신문 언론단체의 양대 축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 매일신문 발행인)와 대한민국의 지방신문협회의(회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발행인)는 지난 3월 7일 포털의 지역신문 차별 정책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21일에는 포털에 지역신문의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문업계 관계자는 “포털의 지역신문 배제는 도를 넘어선 측면이 있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역언론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상황인데도 포털은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 문제를 포털에만 맡겨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언론 확대 넘어 지역언론 죽이는 포털

포털의 지역신문 뉴스 콘텐츠 배열·노출 차별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신문들의 사례는 넘쳐난다.

① **경남신문 사례:** 김해 신공항이 영남지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신문은 지난해와 올해

초 환경부의 항공기 소음 측정이 잘못됐다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다뤘다. 특히 경남신문은 ‘60억원 들인 영터리 환경부 항공기 소음 측정값’(2018년 10월 24일) 단독 보도를 통해 결국 환경부가 소음 측정망을 고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보도는 한국기자협회 산하 경남울산협회가 지난해 경남울산기자상 대상으로 선정할 정도로 지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포털에서는 주요 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② **경인일보 사례:** 지난 3월 4일자 1면에 ‘[단독]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정보 사전 유출·투기세력 활용 의혹’ 보도를 시작으로 현장 영상, 용인시 원삼면 후보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통과, 원삼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상 및 발표 등을 연속으로 보도했다. 경인일보 이후 지상파 방송, 연합뉴스, 서울 매체들의 보도가 줄줄이 이어졌다. 경인일보 기사들은 단독보도 당시에도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상단에 제대로 노출이 안됐고, 지금도 검색하면 재경사 위주의 기사들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

③ **매일신문 사례:** 지난 2월 19일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 기사를 오전 8시 14분 속보기사로 전송했다. 하지만 뉴스 검색 상단은 5분 후 뒤따라 쓴 연합뉴스 기사와 서울의 제휴 매체 기사로 채워졌고, 매일신문 기사는 이후 뒤로 밀려났다. 9시 49분 현장 영상, 9시 54분 ‘2보’ 등을 전송했지만 네이버 검색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④ **부산일보 사례:** 지난 2월 28일 부산 광안대교를 러시아 화물선이 충돌한 사건을 부산일보가 가장 먼저 동영상을 첨부해 1보를 전송했지만, 포털 뉴스 검색 상단은 뒤따라 쓴 서울의 제휴 매체 기사로 채워졌다. 지역신문의 기사는 검색 상단에 걸렸더라도 재경 콘텐츠 제휴사가 해당 뉴스를 쓰기 시작하면 지역신문의 기사는 순식간에 밀려난다.

⑤ **제주신보 사례:** 지난해 5월 24일

페이스북, 지역뉴스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 변경

구글, 지역 언론 유료 콘텐츠 상품 개발 지원

글로벌 IT 기업은 어떻게 국내 포털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역뉴스가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등 지역신문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구글 역시 지역 언론의 유료 콘텐츠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면

서 지역 언론의 콘텐츠 유료화를 지원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월 지역뉴스가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매체의 뉴스, 유익한 뉴스, 지역 공동체 관련 뉴스에 노출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페이스북은 또 자체 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50%

가 플랫폼 내에서 더 많은 지역뉴스 및 지역사회 정보를 원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의 지역 소식(Today In)’ 뉴스피드를 통해 주요 지역 뉴스와 커뮤니티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 이 기능은 미국 내 6개 도시에서 시작돼 지난해 11월 400개 도시로 확대됐다. 현재 미국 및 호주 내 지역에 한정돼 서비스되고 있다.

 http://www.kado.net	 http://www.knnews.co.kr	 http://www.kyeonggi.com	 http://www.knnews.co.kr	 http://www.gnnews.co.kr	 http://www.hidomin.com
 http://www.kbmaeil.com	 http://www.kyongbuk.co.kr	 http://www.ksilbo.co.kr	 http://www.kyeongin.com	 http://www.kwangju.co.kr	 http://www.kookje.co.kr
 http://www.idaegu.com	 http://www.daejeonilbo.com	 http://www.imaeil.com	 http://www.busan.com	 http://www.yeongnam.com	 http://www.iulsan.com
 http://www.jeollailbo.com	 http://www.domin.co.kr	 http://www.jian.kr	 http://www.jejunews.com	 http://www.joongdo.co.kr	 http://www.jbnews.com
 http://www.joongboo.com	 http://www.cctoday.co.kr	 http://www.jhalla.com			

한국신문협회 27개 지방 회원사들은 각 지역에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쌓아오며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방 회원사 중 PC기반으로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은 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등 단 3개 신문에 불과하다. 카카오의 콘텐츠 제휴사에는 지역언론이 아예 없다. 특히 모바일 기준으로는 양대 포털과 콘텐츠 제휴를 맺은 지역신문은 단 한곳도 없다.

오후 6시32분 ‘예멘인 78명 제주에 왜 왔나?’를 제목으로 예멘인 난민 신청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다. 하지만 포털에서는 검색 상단을 차지하지 못했고, 이후 연합뉴스와 중앙 언론 등의 후속 보도로 채워졌다. 이 기사는 기자협회 이달의 보도상(2018년 7월)과 신문협회 2019 한국신문상을 수상했지만 정작 포털에서는 지역 보도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신문협회 “지역독자는 해당 지역 뉴스 볼 수 있도록”

위 사례들은 지역매체가 발굴한 뉴스 중 국가적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것들이다.

한편 뉴스 중에는 국가적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교통통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산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활정보이다. 따라서 부산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이 뉴스가 주요 뉴스로 제공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문제는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해당 지역 매체 및 기사가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해결된다.

신문협회는 포털에 대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해 왔다. 골자는 ①입점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신문에는 포털과의 ‘콘텐츠제휴’ 기회를 부여하고, ②지역신문의 콘텐츠가 우수할 수밖에 없는 기사의 경우 그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며, ③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해당 지역 매체 및 기사가 우선 노출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포털은 이같은 서비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① 콘텐츠제휴 확대 필요

현재 PC기반 기준으로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가장 높은 제휴 단위)를 맺고 있는 120여 개 매체가운데 지역신문은 단 3개(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에 불과하다. 카카오에서는 검색제휴 외에는

지역언론 기사가 아예 하나도 없다.

모바일을 통해 대부분의 뉴스가 소비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모바일 기준으로는 포털과 콘텐츠 제휴를 맺은 지역신문사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신문들 대부분이 포털 뉴스 유통에서 신생 인터넷 언론이나 전문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중앙·지역언론의 균형발전과 이용자 정보복지 제고 차원에서라도 해당 지역 매체별로 조직규모, 전통, 뉴스생산량,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 신문은 가점을 주는 등 입점기준을 정해 이 기준에 부합하는 매체에는 포털과의 콘텐츠 제휴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

② 스탠드제휴의 경우

네이버 PC의 ‘뉴스스탠드’ 제휴사는 총 220여개 사로 지역매체는 33개가 제휴를 맺고 있다. 하지만 지역매체는 하부 서비스 메뉴에서 주요언론사→종합·경제→방송·통

▶ 3면에 계속

“지역신문 없으면 지방정부 감시자 사라진다”

풀뿌리민주주의 훼손, 주민 재정부담 증가 등도 우려
AP ‘지역신문의 가치 과학적 입증’ 논문 소개

AP통신은 지난 3월 10일 ‘지역신문 없으면 정부 감시자 역할 사라진다(Loss of local news hinders ability to watchdog government)’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고, 지역신문 폐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 및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지역신문이 사라지면 ①지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신문협회보 제595호 참조) ②지역 환경 오염 역시 심해지며(신문협회보 제606호 참조) ③지역의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신문협회보 제608호 참조)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데 이

어, 이번 보도로 지역신문의 가치와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Carolina)가 집계한 데이터를 AP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171개 카운티에는 지역신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카운티의 절반에 이르는 1449개 카운티에는 오직 하나의 신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는 이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 폐간되면 정부기관 및 선출직 관료의 행동을 감시

할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므로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정부의 조치 또는 불공정 행위를 조명하기 위한 공공 기록을 요청하거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지역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오기 때문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페넬로페 애버내티(Penelope Abernathy) 교수도 “강력한 신문은 시민과 정부 관료들의 교육자로서 또 정보원으로서 민주주의에 유익하다”며 “(지역신문은) 문제 해결사”고 밝혔다.

AP는 또 지역사회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신문의 부재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고 세금의

증가 등으로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는 이와 관련해 신문의 탐사 저널리즘 역할과 신문 폐간 시 부정적인 영향을 연구한 스탠포드 대학교 제임스 해밀턴(James Hamilton) 교수를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민주주의 탐정(Democracy’s Detective)’에서 “언론사가 탐사보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회에 수백 배의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탐사보도가 감소하면 사회 내 낭비, 사기, 학대 등을 발견할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우려했다.

AP는 지역신문이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지역신문 ‘더 프

레스노 비(The Fresno Bee)’의 예를 들어 강조했다.

AP에 따르면, 이 신문의 편집장이었던 짐 보렌(Jim Boren)은 은퇴 전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의 센트럴밸리 중심부에 위치한 불량 주택(규격 미달의 주택)을 대상으로 4개월간 탐사보도를 수행했다. 짐 보렌은 지역 내 저소득자 및 이민자들이 주로 불량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주택들은 곰팡이와 바퀴벌레 등이 서식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후 시 당국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이전에 단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에서 집소유주가 직접 수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지역신문은 ‘1보’ 해도 금세 포털 하단으로 ▶2면에서 계속

신→IT→영자지→스포츠·연예→매거진·전문지 뒤에 위치해 있어 실제로 독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다.

③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 도입
‘사용자 위치 기반 뉴스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모바일뿐 아니라 인터넷도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역기반 뉴스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해당 지역매체 및 기사가 포털 웹·모바일에 우선 노

출되도록 해야 한다.

저널리즘 복원 특위,
‘위치 기반 지역뉴스 서비스’
도입 제안

한편, 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인사 6명이 참여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저널리즘 복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양승목·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지역 언론의 발전 및 지역주민의 정보 복지 제고를 위해 포털이 ‘위치 기반 지역뉴스 서비스’(예, 지역 거주자에게 해

당 지역 매체 기사 우선 노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활동 결과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역 저널리즘 복원,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도 신뢰받는 지역 언론사의 지역뉴스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노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에도 정상적인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가 생산한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기사가 우선 노출되도록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뉴스 청정기’ ‘신문홍보’ 캠페인 전개

신문협회는 제63회 신문의 날을 맞아 전 회원사와 함께 ‘신문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은 협회가 제작한 ‘신문에 귀 기울이면 다른 생각도 들립니다’와 ‘가짜뉴스에 숨막히는 세상...’은 가짜뉴스를 미세먼지로, 신문은 뉴스 청정기로 각각 비유하면서 가짜뉴스 퇴치는 전문 취재인력과 다단계의 게이트키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신문이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는 소식만 편식하는 세태를 지적하며, 균형잡힌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제공하는 신문이 가장 유용한 매체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가짜뉴스에 숨막히는 세상...’은 가짜뉴스를 미세먼지로, 신문은 뉴스 청정기로 각각 비유하면서 가짜뉴스 퇴치는 전문 취재인력과 다단계의 게이트키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신문이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문에 귀 기울이면 다른 생각도 들립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됩니다.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듣지 않으면 편견의 포로가 됩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취재 과정’ 밝히면 기사 신뢰도 높아진다

투명·신뢰·정확·공정성 등 12항목 평가 결과

美 ‘뉴스 신뢰 프로젝트’ 연구팀 발표

기사 하단에 ‘취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경우 해당 기사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2월 26일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캠퍼스(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미디어 참여 센터(Center for Media Engagement)와 레이놀드 저널리즘 연구소 및 미국언론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뉴스 신뢰 프로젝트(Trusting News Project) 연구팀은 언론사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실험은 뉴스 사이트의 기사 내에 2가지 형태의 부연설명(취재 과정 설명 박스와 다른 관점의 기사 박스)을 추가하고, 각각이 언론사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가짜 뉴스 등으로 언론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가 어떻게 독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문제 의식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취재 과정 부연설명’ 박스의 유무
실험은 2번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모의(mock) 뉴스 사이트를 제작한 후 기사 하단에 ‘취재과정 설명(explain your process)’ 박스를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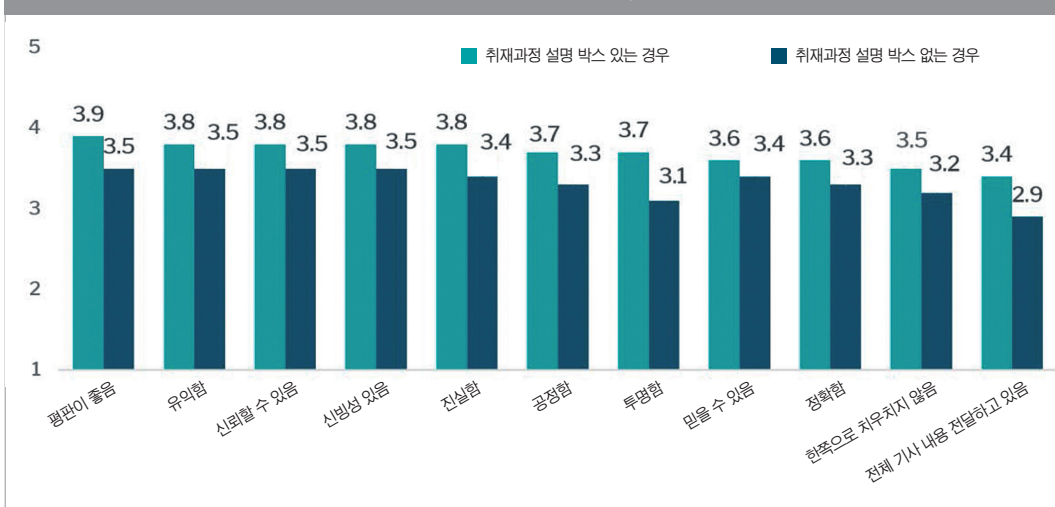
가했다. 실험에는 뱅소니 사건 보도, 미국 내 총기사고 등 실제 기사를 활용했다. 총 753명의 실험참여자 중 절반은 ‘취재 과정 설명’ 박스가 있는 기사를, 나머지는 박스가 없는 기사를 각각 읽게 한 후, 언론사 신뢰도를 12가지 항목(투명성, 신뢰성, 정확성, 공정성 등)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예비실험 결과, ‘취재 과정 설명’ 박스가 있는 기사를 읽은 사람의 경우, 언론사 신뢰도를 5점 만점에 3.8점, 박스가 없는 기사를 읽은 사람은 5점 만점에 3.5점을 각각 매겨 0.3점 차이가 났다.

본실험에서는 실제 USA투데이와 테네시안 언론사의 뉴스 사이트를 사용(USA투데이 기사는 ‘아마존이 새로운 본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였고 테네시안 기사는 ‘참전 용사가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했다’ 등임)했다. 총 559명이 실험에 참여했고 방법은 예비실험과 동일했다.

본실험 결과, ‘취재 과정 설명’ 박스가 있는 기사를 읽은 참가자가 언론사 신뢰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투명성, 유익성, 정확성, 공정성, 전체 기사 내용 전달,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청렴성, 평판이 좋음 등이다.

‘취재 과정 설명’ 박스 유무에 따른 USA투데이, 테네시안의 신뢰도 평가



‘기사의 균형을 보여주는’ 박스의 유무

2가지 다른 관점으로 주제를 다룬 언론사 기사에 대해 실험 참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실험했다. 미국 내 총기규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기사를 모의 뉴스 사이트에 게시하고, 실험참여자 중 절반은 기사 본문 내에 반대 관점을 지닌 기사 박스가 포함된 기사를, 나머지 절반은 박스가 포함되지 않은 기사를 읽게 했다. 실험은 2번에 걸쳐 진행됐으며, 각각 791명과 442명이 참여했다.

첫 번째 연구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균형을 보여주는(Demonstrating Balance)’ 기사 박스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사 신뢰도에 대해 12개 항목 모두 동일하게 인식했다. 또한 이 박스가 나타난 기사를 본 참가자의 절반이 박스를 본

기억이 없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기사 주제와 상관없이 ‘균형을 보여주는 박스’가 있는 기사에 대해 공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참가자의 정치적 신념

이나 온라인 뉴스에 대한 기존 신뢰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공정성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NIE 한국위원회, 올해 사업계획 논의

NIE 한국위원회(위원장 권영부·동북고 수석교수)는 3월 18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자존감과 사회적 소통능력 배양(청소년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가칭) NIE 패스포트 발간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 △신문을 활용한 진로·융합 교육 교원연수 등 올해 주요사업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회 NIE 후원기관인 삼성언론재단 민병기 상임이사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가짜뉴스에 숨 막히는 세상 신문이 세상을 깨끗하게 합니다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뉴스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신문은 맑은 뉴스가 퍼져나오는 뉴스 청정기입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제63회 신문의 날

2019 한국신문상 심사평·수상소감

2019 한국신문상 심사평

이영만 심사위원장(전 경향신문·헤럴드경제 발행인)

“미래 밝히고자 하는 기자들의 열정 확인”

2019년 한국신문상 선정은 매우 어려웠다. 응모작 50건(뉴스취재보도 22, 기획·탐사보도 28)은 역대 최고였고 기사의 질 역시 높은 수준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과거사를 재조명한 기사가 유독 많았지만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추적하고 분석한 뉴스 역시 상당량에 이르렀다. 그 ‘작품’들을 면밀히 읽고 분석한 심사위원들은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고자 하는 일선 기자들의 땀과 열정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재경회원의 뉴스취재보도 부문에선 동아일보의 ‘대법원 징용재판 거래 의혹’, 한겨레의 ‘5·18 계엄군 등 여성 성폭행’, 중앙일보의 ‘신고용세습 의혹’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의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다. 조인경 기자는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는 학부모

들 사이의 소문을 추적해 진실을 밝혀내고 후속취재를 통해 이후의 전개과정까지 충실히 보도함으로써 교육불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묵은 문제를 이슈화 했다.

지방회원사에선 제주新보 좌동철, 홍의석 기자의 ‘예멘인 난민 입국 최초 보도 및 연속 보도’를 뽑았다. 제주新보는 예멘 난민의 입국을 비롯해 그들의 취업실태와 생활상 등을 22차례에 걸쳐 추적 보도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광주일보의 ‘사기 피해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수작으로 꼽혔지만 심사위원 모두 사회적 가치추진을 고려, 수상작을 결정했다.

재경회원의 기획탐사보도 부문은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경향신문의 ‘제5공화국전사 전면 공개’, 서울신문의 ‘간병살인 154인



3월 5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응모작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아래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방문신 관훈클럽 총무, 이영만 심사위원장, 김종구 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이재진 한국언론학회장, 김재봉 지역신문발전위원장,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간사)

의 고백’, 동아일보의 ‘2020 행복원정대’, 한겨레의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과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가 최후까지 경합했다. 이들을 포함, 17편이 모두 나름의 의미를 지녔지만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현상을 제대로 짚은 한겨레신문 김완, 변지민, 박준용, 장나래 기자의 ‘가짜뉴스’를 선정했다. 김완 기자 등은 가짜뉴스를 누가 왜 만들었는지 밝히기 위해 가짜뉴스를 검증하고 생산자를 역추적하는 치열함을 보여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냈다.

지방회원사에선 부산일보 박진국, 김한수, 이승훈, 민소영, 김준용 기자의 ‘난개발 그늘, 해안의 역습’이 매일신문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전북일보의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과 경쟁했다. 부산일보는 무분별한 난개발의 문제점을 현장 취재와 방대한 데이터 분석, 다양한 해외사례 등을 통해 날카롭게 파헤쳐 지역신문 탐사보도의 본보기를 잘 보여주었다. 수상작 뿐 아니라 응모작 50편을 생산한 모든 기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뉴스취재보도부문 수상소감

소문의 실체를 찾아… 학부모들 용기로 드러난 내신 비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시대의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이 바뀌면 입시제도도 변화해야 하지만, 국민 누구나 발전적이고 공정한 방향이라고 수긍할 만한 함의를 이끌어내려는 과정은 복잡하고 지난했다. 공교롭게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쟁과 갈등이 최고로 치달은 시점에 숙명여고의 내신 비리 의혹을 포착했다.

혹여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얼굴을 가리면서도 용기를 내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폐쇄적인 사립학교를 상대로 교육청 감사를 이끌어 내도록 나선 것은 학부모들이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의혹인지 확인하고, 교육당국에서 이 사안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이 기자의 몫이었다.

보도를 계기로 최근 수년간 시험지 유출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이 있었던 다른 학교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비리는 또 생길 수 있지만, 유아무야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됐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길’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우리 교육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뀌는 과정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으로 내일도 현장에 출근할 힘이 생겼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제주 땅 밟은 예멘인들의 앞날은

제주新보 좌동철·홍의석 기자

2018년 4월 말 제주국제공항에 근무하는 동창생의 전화는 당황스러웠다.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알고는 있냐? 애 네들이 요즘 80명씩 제주에 오는데 출입국 쪽에서 골치가 아픈 것 같다(제주방인).”

‘예멘 사람들이 제주에 왜 왔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취재가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장이 클 줄을 예상하지 못했다. 5월 3일 첫 보도를 했지만 한 달 동안 예멘인 난민 입국 문제는 미지근했다. 최빈국(最貧國)으로 4년간 내전의 참화에 시달려 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제주 땅을 밟은 이들

은 당장 거주와 생계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 사회에서 이처럼 많은 난민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당시 제주출국입국에 있는 난민 심사관은 1명이었고, 제주도에는 아랍어 전공자조차 없었다.

예멘인 561명이 무(無)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412명 중 183명이 현재 제주에 살고 있다. 이 중 57명(31%)은 지금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예멘인 난민 사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기획탐사보도부문 수상소감

진짜 뉴스를 해나가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김완·변지민·박준용·장나래 기자

어떤 현상은 사건이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입국하자 한국 사회엔 기다렸다는 듯 ‘혐오’가 창궐했다. 한 번도 난민 문제를 ‘우리 안의 문제’로 인식해보지 못했던 입장에서 뜻밖이었다. 어떤 이들은 왜 분노하는 것인가, 무슨 공포로 공동체의 밑동이 흔들리는 것인가. 궁급했다. 그 전쟁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가짜뉴스’였다.

시작은 지지부진했고, 과정은 쉽지 않았다. 회로 안에 들어서지 못하고 입구인지 출구인지 모를 지점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렇게 ‘3단 연결망 분석’이라고 이름 붙인 ‘가짜

뉴스 생산·유포·전달자’ 그림을 완성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다. “우리야말로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본 기자들”이란 농담을 위로처럼 삼키며 만들어낸 한국 사회 혐오 지형도를 만들었다.

보도 이후 가짜뉴스 전파는 다소 둔화된 양상도 보인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심층 취재하자, 가짜뉴스의 유포와 확산이 위축된 것이다. 독자들이 미디어를 수용하는 시간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면, 가짜 뉴스 소비가 늘어난 것은 그 만큼 진짜 뉴스를 접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의 ‘예언자적’ 역할에 충실했던 보도… 무거워진 책임감

부산일보 박진국·김한수·이승훈·민소영·김준용 기자

위기의 ‘부산 해안’ 실태에 공감하며 뜻 깊은 상을 준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기획 시리즈를 지면 전면에 내세우고 ‘통 큰 편집’으로 부각시켜 준 부산일보 모든 임직원에게 공을 돌린다.

이 보도는 그동안 잊혀졌던 언론의 예언자적 역할에 충실했던 기획보도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자연 재해’의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집값이 떨어진다” “오지도 않는 재난인데 오버하는 게 아니냐” 등 반발도 있었지만, 오로지 향후 끔찍한 피해를 불지도

모르는 시민과 부산을 생각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세상에, 또 시시각각 터지는 이슈들에 언론의 예언자적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우리가 방관하고 침묵한 사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는 어떤 괴물들이 자라고 있을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 병들어가는 사회 곳곳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데 책임을 다하겠다. 이번 보도처럼 단순히 실태만 파헤치기보다 전문가 토론회, 해외 사례 소개 등을 거쳐 해답까지도 내놓는 의미 있는 시리즈를 발굴해 낼 것이다. 뜻 깊은 수상을 책임감으로 여기겠다.

‘제63회 신문의 날 표어’ 우수상

- 착 펴면 척 보이는 세상, 다시 신문이다
- 급류를 타는 세상, 방향키 잡는 신문

“신문은 빈틈없는 팩트와 의미 있는 가치의 전달자”

신문의 날 표어 심사평

올해 ‘신문의 날’ 표어 응모작은 2707건. 지난해 2435건보다 200건 이상 많았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팩트와 가치의 최정점에 신문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손색없을 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이번 신

문협회 표어 심사는 수상작 3편 중 대상 작품 선정에 두고 일치락되지 않는 등 긴장의 연속이었다.

응모작 중에서 심사위원회는 ‘신문보며 배우네 나무도 숲도 읽어 내는 안목’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언뜻 보기에는 표어의 정형화된 운율을 벗어나고 내용도 일견 당연한 듯 다가왔다. 하

지만 반복해서 읽어 보니 신문의 정수인 정확한 팩트, 팩트들이 엮여 일궈 내는 가치의 중요성을 율림과 여운 가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착 펴면 척 보이는 세상, 다시 신문이다’와 ‘급류를 타는 세상, 방향키 잡는 신문’을 선정했



3월 12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신문의 날 표어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 및 선정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수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배성재 한국일보 기자

다. 두 작품은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도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하면 세상의 정확한 흐름을 간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직관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성 들여 응모한 작품들을 통해 시대의 변화가 가속화수록 신문의 가치는 더 고귀해진다는 사실을 재차 깨달은 귀중한 기회였음을 밝힌다.

회원사 기자 115명, 일일교사로 학교 찾아간다

5~11월 180개 학교 강의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기자 115명(3월 29일 현재)이 학생들의 신문에 대한 관심 증진과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일교사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다.

신문협회가 지난 3월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할 회원사 기자를 모집한 결과 52개 회원사 가운데 40개사 115명의 기자가 신청했다.

2개사는 4월초에 참가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문협회는 4월 중순까지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할 초·중·고등학교 180개교를 선발한 후, 각 학교별로 기자를 배정해 신문사와 학교에 각각 통보할 예정이다. 선발된 일일교사는 추후 예정되는 각 지역 학교 교사와 강의일정, 주제 등 세부내용을 협의·확정한 후 5월부터 강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번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신문협회가 2004년부터 해마다 실시해 온 ‘일일교사 프로그램’에서 명칭을 바꾸고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문 기자들이 직접 학

‘신문기자 진로탐색’ 참가 회원사

지역	기자 수	참가 회원사(40개)
서울	3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전자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소년한국, 헤럴드경제
경기	7	경기일보, 중부일보
강원	6	강원도민, 강원일보
대전·충청	9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부산·경남	18	경남신문, 경남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울산	5	경상일보, 울산매일
대구·경북	23	경북도민, 경북매일, 경북일보,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광주·전라	12	광주일보, 전북도민, 전북일보
제주	4	한라일보

교를 방문해 직업으로서의 기자, 신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춰재와 보도과정 등 신문기사와

여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LG상남·성곡·언론진흥재단 언론인 해외연수자 선정

청탁금지법으로 2017년 잠정 중단됐던 민간언론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가 속속 재개되고 있다. 민간언론재단의 언론인 해외연수가 정당·공정·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결과다.

LG상남언론재단은 3월 7일 미국 등 주요대학 저널리즘 연수를 위해 언론인 10명을, 성곡언론문화재단은 18일 미국 미주리대 저널리즘 스쿨 연수자 3명을 선정했다고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도 3월 8일 언론인 해외 연수자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 수호와 ‘책임있는 언론’ 구현을 위해 1961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설립한 국내 유일의 언론자율감시기구입니다.

각 신문에 게재된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는 서약문의 실천 여부를 상시 감시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온라인신문의 기사와 광고를 심의합니다.
기사와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을 접수하여 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5호 T. 02)734-3081~3



제63회 신문의 날

신문협회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신문협회상 수상자 52명

신문협회는 제63회 신문의 날(4월 7일)을 맞아 회원사 우수사원 52명을 선정, 신문협회상을 수여한다. 신문협회상은 매년 각 회원사에서 추천한 우수사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4월 4일(목) 오후 4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한다.



이종혁
경향신문사
전략기획실
전략경영팀 부국장대우



김익동
국민일보사
종교국
종교기획부 과장



김은광
내일신문사
편집국
재정금융팀



김세환
동아일보사
AD본부
AD3팀 부장



최재영
매일경제신문사
공무국
윤전전기부 차장대우



윤근종
머니투데이
경영지원실
부장



박성욱
문화일보사
제작국
전산운영팀 차장



지봉철
브릿지경제신문사
편집국
산업IT부 부장대우



한승훈
서울경제신문사
마케팅국
마케팅1부 차장



이덕승
서울신문사
제작국
편집제작부장



신규택
세계일보사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이상민
스포츠투스
경영기획실
IT부 부장



김홍재
스포츠투스
경영지원본부
재경팀 차장



조병무
아시아경제신문사
디지털운영본부장



조윤섭
아주경제신문사
통합관리국장



최광호
이데일리
광고마케팅국
차장



이영주
전자신문사
고객서비스국
고객지원팀 차장



박근수
조선일보사
CS본부
CS총괄팀 차장



이주형
중앙일보사
광고사업본부
디지털마케팅팀 차장



김용득
한겨레신문사
경영기획실
정보기술부 차장



김대환
한국경제신문사
광고국
광고마케팅부 차장



이제환
한국일보사
AD전략국
디지털마케팅팀 차장



신동윤
(주)헤럴드
경영지원실
총무인사팀 과장



안병길
뉴스1
CMU 차장



신영철
연합뉴스
DB출판국
DB부 부장



천남수
강원도민일보사
강원사회조사연구소
국장



안동규
강원일보사
출판기획국
읍세트부 부국장



이미숙
경기일보사
업무국 사업부
차장



강미주
경남신문사
총무국
총무부 과장



강현석
경남일보사
관리국
총무팀 과장



노정효
경북도민일보사
총무국



박형남
경북매일신문사
서울취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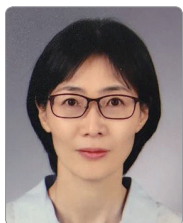
곽성일
경북일보사
편집국 행정사회부
부국장대우



김창식
경상일보사
편집국 경제부장



이승철
경인일보사
편집국 디지털뉴스부
기획운영팀 부장



백선영
광주일보사
기획관리국
차장



류지봉
국제신문사
독자서비스국
부국장



허규만
대구일보사
경영국
총무부 차장



반상훈
대전일보사
경영지원실
부장



이현아
매일신문사
독자서비스국
판매관리부장



서정수
부산일보사
경영지원본부
제작국 부국장



박성희
영남일보사
편집국
편집지원팀



김형식
울산매일신문사
편집국
디지털편집부 차장



유기훈
전라일보사
총무국
총무부 부장대우



최용우
전북도민일보사
총무국
총무부



이강모
전북일보사
편집국
사회부장



박미현
제주신문사
서귀포지사
부장



박갑순
충도일보사
문화사업국
부국장



정규철
충부매일신문사
편집국 지방부 총주주재
충북북부본부장



조예슬
충부일보사
업무국
총무부 차장



김진웅
충청투데이
문화사업본부
과장



이윤형
한라일보사
편집국
행정사회부 부국장

회원사 동성

서울, 제18회 하프마라톤대회
서울신문(발행인 고광현)은 '제18회 아식스서울신문하프마라톤대회'를 5월 19일 개최한다. 참가 종목은 하프·10km·5km이며, 참가 인원은 선착순 1만 명이다.

중앙, 새 윤리강령 제정

중앙일보(발행인 홍정도)는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에 맞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원칙을 적시한 '중앙일보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새 윤리강령은 언론의 기본 윤리 △취재 윤리 △독자에 대한 윤리 △제작 과정의 윤리 등을 담고 있다.

한경, 홍익대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한국경제(발행인 김기웅)는 3월 21

일 본사에서 홍익대와 교육과정 공동 개발 등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9월 가을학기부터 '현대미술 최고위과정'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도민, 2019 강원자전거대행진

강원도민일보(발행인 김중석)는 4월 20일 춘천, 원주, 강릉 등 강원도내 전역에서 '2019 강원 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시·군별 개최 일시 및 장소는 강원도민일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인, '제20회 화성孝 마라톤 대회'
경인일보(발행인 김화양)는 '2019 제20회 화성孝 마라톤 대회'를 5월 4일 개최한다. 참가종목은 하프·10km·5km이며, 접수마감은 4월 12일이다.

국제,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축제
국제신문(발행인 박무성)은 '2019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축제'를 5월 19일 벅스코와 광안대교 일원에서 개최한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접수마감은 5월 6일이다.

대구, 임직원 해외연수 실시

대구일보(발행인 이후혁)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14~17일 홍콩·마카오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해외연수는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임직원 80여 명이 참가했다.

영남, '제12회 국제 하프마라톤대회'
영남일보(발행인 노병수)는 '제12회 국제 하프마라톤대회'를 5월 12일 개최한다. 참가종목은 하프·10km·5km이며, 접수마감은 4월 26일이다.

세계 정희택 중도 김원식 발행인 신문윤리위 이사에 선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기웅 한국경제 발행인)는 3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세계일보 정희택 발행인과 중도일보 김원식 발행인 등 5명을 이사로 선임했다.

김종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한겨레 편집인), 김진홍 국민일보 편집인, 김종필 내일신문 이사도 이사로 선임됐다.

중부일보, '화성따라 자전거타기'
중부일보(발행인 최윤정)는 '제20회 화성따라 자전거타기'를 4월 27일 수원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한다. 접수마감은 4월 25일이다.

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제12기 부일CEO아카데미' 입학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노병수 영남일보 발행인은 3월 20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열린 '제7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임환 전북도민일보 발행인은 3월 14일 전주 그랜드 힐스텐에서 열린 '비전창조아카데미(CVO)제4기 과정' 개강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서창훈 전북일보 발행인은 3월 13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6기 개강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초격차 1등 매경” 만들자

매일경제 창간 53주년 기념식

매일경제(발행인 손현덕)는 3월 22일 본사에서 창간 5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장대환 회장은 기념사에서 “창간기념 행사인 ‘국민보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밀리테크 4.0’이라는 주제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전략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매일경제는 모바일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플랫폼그룹’으로서 ‘초격차 1등 매경’을 만들기 위해 ‘매경인’ 각자가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판협, ABC공사 효율성 제고 등 올해 주요사업 확정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회장 전종현·동아일보 마케팅본부장)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판매협의회는 3월 15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ABC부수공사 효율성 제고(발행부수 중심 공사 추진) △실무자 TF 운영(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신문 공동수송노선 개선, 통합배달센터 시범사업 지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신문협회보

회장 이병규
사무총장 허승호
발행처 한국신문협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발행인 동성

변재운 국민일보 발행인은 3월 15일 부산 센텀시티 KNN타워에서 열린 '제1기 부산정책고위과정' 개강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발행인은 3월 1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이병규 문화일보 발행인은 3월 21일 본사 앞에서 열린 '소나무 살리기 캠페인'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주목과 금강소나무 묘목을 나눠줬다.

이종환 서울경제 발행인은 3월 2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베스트 뱅커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박영길 아주경제 발행인은 3월 13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2019 APFF)'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이백규 뉴스1 발행인은 3월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바이오 리더스클럽'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발행인은 3월 21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CEO아카데미 4기 개강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신향철 경기일보 발행인은 3월 16일 화성드림파크에서 열린 '제2회 화성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식에 참석해 단체 시구를 했다.

한국선 경북일보 발행인은 3월 20일 문경온누리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9안전골든벨 경북 어린이 퀴즈쇼'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임주호 경상일보 발행인은 3월 17일 울산종하체육관에서 열린 '제31회 SK배 경상일보 울산아마바둑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김여송 광주일보 발행인은 3월 5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7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입학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무성 국제신문 발행인은 3월 6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 아카데미 16기 개강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김진수 부산일보 발행인은 3월 12

더 높은 품질, 더 넓은 세계...

최고의 신문인쇄
KORINK가
약속 드립니다.



KORINK 한국신문인크(주)
www.korink.com